

---

## 분열된 브라질과 세 번째 임기의 톨라

지안카를로 수마

저널리스트

---

원제와 출처: Iván Olano Duque, “La tercera vez de Lula en un Brasil partido en dos”,  
*Nueva Sociedad*, No. 302, noviembre–diciembre de 2022, pp. 4–12.

핵심어: 선거,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10월 30일 일요일은 브라질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다소 믿기지 않는 안도감을 안긴 밤이었다. 톨라가 전 세계 극우 세력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세 번째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다. 톨라 전 대통령은 수년간의 언론 공세와 사법적 박해로 12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580일 동안 감옥살이를 한 끝에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전례 없는 정치적 부활을 이뤄냈다. 그러나 한때 금속 노동자였던 톨라 앞에 놓인 몇 달, 몇 년간의 도전은 이제 막 끝난 힘겨운 선거 운동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보우소나루의 강력한 무장

핵심 세력의 반발을 피하고 취임에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난 수년간 야만적인 경제적 신자유주의로 인해 망가진 사회를 바로 세우고 유권자의 절반을 잠식한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이데올로기의 전횡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최고선거재판소(Tribunal Supremo Electoral: TSE)가 결과를 발표한 직후, 톨라는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수백 명의 기자와 해외 인사들 앞에서의 첫 당선인 성명에서 보우소나루에게 투표한 수천만 명의 브라질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저는 제게 투표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2억 천5백만 브라질 국민을 위해 통치할 것입니다. 두 개의 브라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하나의 위대한 국가입니다. 불화가 지배하는 가정에 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중오 범죄의 확산으로 끊어진 유정의 유대를 재건할 때입니다… 이 나라는 평화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로 드러난 브라질을 분열된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다. 브라질은 사실상 둘로 나뉘어 있다. 톨라는 2차 투표에서 6,030만 표를 얻어 5,820만 표를 얻은 보우소나루를 이겼다. 전체 유권자 1억 2천4백만 명 가운데 50.9%대 49.1%라는 근소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유권자의 20.5%인 3,200만 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브라질은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기권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유효투표의 48.4%인 5,720만 표를 얻었던 10월2일의 1차 선거와 비교해 보면 톨라의 득표수는 3백만 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보우소나루는 유효투표의 43.2%인 5,100만 표를 얻은 1차 선거보다 7백만 표를 더 획득했다. 2차 선거에 진출하지 못한 두 명의 최다 득표 후

보(490만 표를 얻은 시모네 테베르와 350만 표를 얻은 시로 고메스가 물라를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결과다. 특히 테베르는 2차 투표에서 물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열렬히 펼쳤지만, 물라 1기 정부(2003~2006년)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고메스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중도 좌파에 속한다고 알려진 고메스는 2018년에도 같은 행보를 취했다. 당시 선거 직전 체포된 물라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출된 노동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 전 상파울루 시장이 선거 전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세했지만, 보우소나루가 2차 투표에서 그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고메스는 1차 투표에서 1,330표(12.4%)를 얻었지만 아다지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2022년 대선 결과는 4년 만에 보우소나루주의가 지난 몇 주 전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1차 투표 이전의 모든 여론 조사는 극우 성향의 선거인단을 과소평가했다. 물라는 50~51%, 보우소나루는 36~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차 투표에서는 오차가 더 작았지만, 여전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통계학자들은 이 오류의 주된 원인이 인구조사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인구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고, 2020년에 예정되었던 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이후로 몇 가지 중요한 인구 통계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사용된 표본은 쓸모없게 되었다. 설문조사의 방법론적 문제 외에도 보수적 의미로 문화적, 정치적 변화가 분명 심각하게 일어난 것이다. 물라가 약속한 대로 “브라질의 영혼을 재건하고 관대함, 연대감, 차이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경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문화 주도권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첫 임기(2003~2010) 동안 물라는 극빈층의 물리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브라질의 심각한 불평등의 구조적 뿌리까지 흔들지는 못했다. 정치학자 앙드레 싱어가 정의한 ‘물라주의(Lulism)’는

약한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기존 정치, 경제 엘리트와의 화해를 고착화한 형태였다. 동시에 노동당이 이끄는 정부는 주요 개혁을 시행하여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계 소외 계층에게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중산층'은 몇 년 동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었다. 2015년 지우마 호세프 정부가 초래한 대불황을 시작으로 미세우 테메르(2016~2018) 쿠데타 정부와 보우소나루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기 악화가 심해져 수천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빈곤선 아래로 밀려났다. 그러나 몇 가지 심오한 사회적 변화는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여성의 경우, 수년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전례 없는 자율성과 권한을 누릴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가부장적 체제에 점점 더 강하게 맞서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층 개방적인 행동 패턴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편견과 동성애 혐오의 골은 여전히 깊었지만, LGBTI+ 권리를 위한 투쟁은 보편화되었고 새로운 세대 내 동성 간의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적 보수주의가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의 확산과 밀접히 맞물려 증가했다. 복음주의자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되며 보우소나루주의의 사회적 지지와 선거전 지원의 주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대중적 천주교는 가혹한 군사독재(1964~1985)와 민주화 과정에서 존재감이 매우 커졌고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천주교는 소위 '변영신학'(신자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을 강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新)오순절과 목회자들의 다양한 담론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룰라의 두 임기와 호세프의 첫 임기 동안 브라질의 빈곤층은 사회계층이 상승할 것이라는 환상을 지녔지만, 실제 생활환경, 특히 대도시 주변의 거대한 외

곽에 있는 공공 공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양질의 대중교통, 교육, 의료, 만남의 장소, 문화 제공의 부재는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커뮤니티 공간 내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순절 교회는 신자들 간의 상호 지원과 사회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결함을 보완하고, 그 대가로 일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신자들이 번 모든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십일조 납부 이외에도) 매우 보수적인 행동을 요구한다.<sup>1)</sup> 오순절 교회의 존재는 도시 주변부에서 시작해 점차 브라질의 모든 지역과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천주교의 가장 강경한 세력은 낙태에 관한 격렬한 반대를 시작으로 점점 더 보수적인 가치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이 담론을 이용하였다.

일종의 현란한 반대를 통해 개인행동을 현대화하려는 추세는 보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부상에 관한 고전적 연구에서 미국인 연구원 피파 노리스와 로널드 잉글하트는 이를 문화적 반발<sup>2)</sup>이라고 불렀다.

질서, 전통, 가족, 종교, 고향, 재산, 충성도는 보우소나루 권위주의 담론의 주요 핵심으로, 대부분 오순절 주장에 스며들어 있는 보수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비전은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타자'(정치적, 문화적 가치관, 성적 취향, 종교적 신념 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한다. 브라질에는 이민자, 난민, 비(非)그리스도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권위주의 담론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외국인 혐오 특성이 덜하다. 보수적-권위주의적 보우소나루 담론을 그 글로벌 아류 담론들과 연관해 이해하는 것은 근대성과 세속

1) Lamia Oualalou: *Jesus t'aime. La déferlante évangélique*, Les Éditions du Cerf, Paris, 2018.

2) P. Norris y R. Inglehart: *Cultural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oritharian Populism*, Cambridge up, Cambridge, 2019.

주의의 확산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유토피아, 명백한 사회적 인종적 위계질서, 가부장적 지배의 황금기로 돌아가려는 확실한 열망을 통해 유지되는 세계관을 고양한다.<sup>3)</sup> 2022년 브라질은 20년 전 룰라를 처음 선출했던 브라질과는 매우 다르다. 인구는 증가했고(1억 8천만 명에서 2억 2천5백만 명으로) 젊은 층은 감소했고, 국토는 도시화 되었으며(남동부의 경우 인구의 93%가 도시에 거주), 내부 연결성이 높아졌고(인구의 80%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생산 측면에서도 매우 달라졌다. 이미 시작된 브라질의 탈산업화 과정은 2016년 쿠데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재 산업 부분은 GDP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데 반해 주로 수출용 상품(대두, 곡물, 소고기, 가금류 등) 생산에 집중된 농업 관련 산업이 26%를 차지한다.

룰라가 1970년대 카리스마 넘치는 금속노조 지도자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상파울루 산업 벨트에서 특히 두드러진 남동부 지역의 탈산업화는 중서부 지역의 강력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농업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가의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부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도시 중심부와 상반되는 일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강화되었다. 한편으로는 농업 기계와 살충제 옹호, 삼림 벌채 가속화, 대형 트럭 사용, 보수적 가치 및 ‘세르타네주(sertanejo)’ 음악,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증가, 국제적 도시 생활에 대한 이상, 성과 생식의 권리에 대한 결렬한 운동, 마약 비(非)범죄화에 대한 지지 증가가 그러한 것들이다.

2022년 선거 결과는 브라질의 다양한 인구 내의 분열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브라질 주요 여론 조사 기관 중 하나인 다타폴라(Datafolha)에 따르면 룰라

3) Benjamin Teitelbaum: *War for Eternity: Inside Bannon's Far-Right Circle of Global Power Brokers*, Dey Street Books, Nueva York, 2020.

는 특정 부분에서 얻은 과반수 득표로 인해 당선되었다. 여성(52%대 보우소나루 41%), 16~24세 젊은 층(53%대 39%), 45세 이상의 고령 유권자(51% 대 43%),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60%대 34%), 최저임금을 받는 2명까지 포함해 470달러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최빈층(61%대 33%), 북동부 거주자(67% 대 28%), 천주교 신자(55%대 39%), 아프리카계 후손(60%대 34%) 등이다.<sup>4)</sup> 반면 보우소나루는 남서부, 남부, 북부, 중서부 지역의 남성과 백인 인구 및 부유층 사이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주의는 과거 노동자당 정부에서 사회, 경제 정책의 혜택을 누렸던 중하위 계층의 상당 부분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2013년 대규모 시위와 라바 자투(Lava Jato) 작전으로 잡힌 부패 혐의 이후 톨라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다.(라바 자투 작전으로 톨라는 감옥에 보내졌지만, 이 과정에서 사법 조작이 있음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톨라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22년 톨라의 선거 운동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톨라 유권자의 핵심을 대표하는 사회적 피라미드의 하부를 겨냥한 플랫폼으로, 브라질을 다시 유엔의 기아 지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용,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톨라는 집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말에 바베큐를 굽고,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둘째, 톨라는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우소나루주의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낙태를 ‘공중 보건 문제’로 취급하던 기존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뒤집어 “나는 낙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와 결혼한 여성들도 낙태를 반대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낙태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보호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낙태가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임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여성의 건강에

4) 설문조사 사이트: <<https://media.folha.uol.com.br/datafolha/2022/10/31/intencao-de-voto-presidente-2-turno.pdf>>

위험이 있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가 무뇌아일 때에만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론상 합법적 낙태가 가능하다. 이외 모든 경우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유한 여성들은 종종 개인 병원에서 낙태 비용을 내지만, 이제는 그들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아프리카계 여성과 가난한 여성의 불법 낙태는 산모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수십 년 동안 페미니스트 운동은 낙태 합법화를 위해 투쟁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동시에 2021년 말부터 물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즉, 보우소나루의 연임과 권위주의 방식의 심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광범위한 동맹을 끈질기게 구축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을 하나로 모았다. 2006년 노동자당에서 좌파가 분리되어 탄생한 사회주의자유당부터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주(1995-2002)의 중도우파인 브라질 사회민주당과 다수의 온건파 인사들까지 포함했다. 물라는 부통령으로 16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바 있는 전 상파울루 주지사이자 2006년과 2018년 대선 후보였던 제랄두 알크민을 선택했다. 그리고 부통령에 임명했다. 점점 카르도주를 시작으로 물라의 정적 중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했다.

이전에 사회민주당(PSDB)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주요 경제학자들과 금융 부문의 유명 인사들이 그를 지지했다. 따라서 물라가 승리한 후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OVESPA)가 상승세로 마감하고 헤알화가 달러 대비 절상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8년 보우소나루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지지했던 브라질의 국제 자본은 결국 대안의 부재로 국제 외교계와 대규모 다국적 기업 이사회의 지배적인 방향에 동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물라가 브라질을 일으켜 세우고 진정시킬 유일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마존의 무분별한 파괴에 대한 승인부터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낸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이르기까지 보우소나루 정부의 재앙스러운 결정은 브라질을 세계적인 천민으로 추

락시켰고, 점점 더 고립되고 덜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장소로 만들었다.

브라질리아에 주재하는 몇몇 대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외교관들은 자국의 정부가 룰라의 당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계는 당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 유럽 주요국 대표는 선거 전 회의에서 룰라에게 전했다.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59분, 브라질의 선관위가 룰라의 당선을 확정하자마자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외교부로부터 축전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백악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보우소나루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민병대와 군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시도할 가능성을 줄일 목적으로 조율된 외교적 작전이었다.

선거 패배는 보우소나루와 그의 참모들을 놀라게 했다. 정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선거 직전 쿠데타로 분산된 가족에게 수십억 유로의 지원, 룰라 유권자에 대한 협박, 소셜 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허위 정보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룰라가 ‘악마와의 협정’을 맺었다고 비난하는 등 괴기스러운 내용을 유포했다. 보우소나루주의는 자체 뉴스와 음모론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개방형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폐쇄형 왓츠앱(WhatsApp) 및 텔레그램 그룹을 이용한다. 이들 모두는 보우소나루가 그의 지지층에서 부르는 ‘신화’, 즉, 4년 더 대통령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진정으로 믿는 듯했다. 패배에 직면하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구체적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우소나루는 관저로 물러나 룰라를 축하하거나 지지자들에게 어떤 표명도 하지 않고 거의 48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투표 후 첫 주 동안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우소나루의 최측근 중 일부는 패배를 인정하고 새 정부로의 제도적 전환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보우소나루의 지지층도 결집했다.

전국적으로 사흘 동안 수백 개의 도로와 고속도로가 트럭과 임시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퇴거 명령에 직면한 보우소나루는 11월 2일(수) 저녁, 거리를 비워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보우소나루는 여러 도시의 육군 사령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미래의 노동당과 룰라 '독재'의 도래를 막기 위해 군대의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대는 결과가 미심쩍고 국제적 지원도 없는 모험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보우소나루 첫 임기 부통령이자 올해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예비역 아미우통 모랑 장군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sup>5)</sup> 2026년에 “훨씬 더 강력한” 권력으로 돌아오기 위한 제도적 경로를 암시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즉각 올렸다.

2023년 1월 1일 룰라가 취임할 때까지 두 달간의 과도기는 힘들고 긴장된 시간이 될 것이다. 군 사령부가 중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우소나루는 거의 4년 임기 동안 돌격 소총을 포함한 무기 구매를 촉진했다. 현재 브라질 전역에는 67만 5천 명 이상의 CAC(사냥꾼, 사수, 무기 수집가의 포르투갈어 약자)가 백만 개 이상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sup>6)</sup> 수치상으로는 브라질 전역의 군대나 주 경찰보다 더 많은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실제 문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룰라는 그의 선거 운동의 두 가지 큰 약속, 즉 극빈층의 생활 조건을 빠르게 개선하고, 보우소나루가 구축한 제도적이며 상징적인 권위주의적 체제와 사고를 거부하며 국가의 민주적 평화를

5) 《이제 우리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원한다(Agora querem que as Forças Armadas deem um golpe) …》, 트위터: <<https://twitter.com/GeneralMourao/status/1587925877966241793>>.

6) 《브라질에서 백만에 가까운 사냥꾼과 명사수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의 수(Número de armas nas mãos de caçadores e atiradores chega a 1 milhão no Brasil)》 en Folha de S. Paulo, 31/8/2022.

보장해야 하는 시기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은 채, 특권, 자금 및 특전을 대가로 현 정부를 지원하는 소위 중앙세력과 매번 협상하며 진행될 것이다.

톨라가 20년 전 달성한 ‘원의 제곱(cuadratura del círculo: 불가능한 일을 지칭)’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세계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도 둔화하고 있다. 상품 수출은 내적 갈등 없이는, 다시 말해 이전 시기에 계급투쟁으로 불렀던 계층 대립 없이는 더는 사회적 포용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없을 것이다. 톨라주의가 사회나 유권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여 국가의 불평등을 신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세제 개혁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소득을 잃게 될 특권층의 불만뿐 아니라 톨라를 선출한 연립정부의 상당수가 지닌 불만도 직면해야 한다. 연립정부는 정권 인수 위원장으로 임명된 알크민 부통령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톨라는 극빈층에게 약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며,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실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 보우소나루주의 귀환을 맞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3개의 B(성경, 황소, 총알)를 기반으로 한 보우소나루주의는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회와 거리에서 그 대표자들은 강력한 반대를 펼칠 것이다. 선거 전 보우소나루가 합류한 자유당은 투표에서 상·하원의 다수당을 구성했다. 학자인 로베르토 안드레스가 예리하게 썼듯이 보우소나루주의의 반동적 기획은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환상적인 사회적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보수적 성향에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첫 톨라주의 황금기로의 회귀를 초월하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전망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정책과 선택을 통해 진보적 성향이 확대되는 점진적 사회

개선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7)</sup>

이것은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좌파와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좌지우지 할 결정들이다. 2차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룰라는 77세가 되었고, 선거 운동 동안 “2026년 12월 31일, 이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 나라는 궤참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4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룰라의 결정과 그 구체적 결과는 민주 진영에서 어느 후보가 룰라를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이 후보가 보우소나루 극우파를 물리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브라질의 미래는 이 모든 것에 달려 있으며,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두 번째 진보정권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은아 옮김

7) R. Andrés: 《룰라의 ‘부활’과 룰라주의의 새로운 도전》 La ‘resurrección’ de Lula y los nuevos desafíos del lulismo》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10/2022, <www.nuso.org>.